

근면과 성실로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신애원 농장 박 동 래 사장

- 취재 : 이 병 석 -



▲ 28년동안 축산업에 몸담아오면서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지금의 신애원 농장을 이루어낸 박동래 사장, 박사장의 웃음속에 남다른 진솔함이 느껴진다.

"노력한 만큼 대가는 꼭 준다"

IMF (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체제하에서 국가 경제가 부도에 처할 위기에 직면하였고, 달러 (\$)에 대한 원화의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됨으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모든 원자재값이 폭등함에 따라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등, 실로 한치앞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양돈산업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이 예전보다 50%가량(98년 1월 14일 기준) 상승하였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요인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

리 양돈산

업은 배합사료, 약품 등의 가격폭등에 의한 생산비의 증가와 국내시장의 돼지고기 소비 둔화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이 맞물려 실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하여 이미 벌려놓은 농장을 하루아침에 손뻛수는 없는 일이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결코 이 상태에서 주저 앉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박동래(52세, 본회 전부천지부장) 신애원 농장 사장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굽히지 않고,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깨어있는 양돈인 중의 한 사람이다.

IMF시대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박동래 사장은 지난 71년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육계로 시작하여 중간에 양돈과 복합으로 경영해오다 83년도에 현재 위치한 평택시 장안동으로 농장을 이주하면서 양돈으로 완

전 탈바꿈하고 모돈 100두를 가지고 시작하여 지금까지 규모를 착실히 늘려 28년이 지난 지금 대지 1만평에 돈사 2,000평, 비육돈 3,500두의 중상위 농장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농장시설은 분만사를 제외한 전돈사가 톱밥발효돈사로 되어 있었는데 돈사방향이 남쪽을 향하고, 지대가 높은 곳에 층층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통풍이 잘되는 등 톱밥이 발효가 잘 되어 돈분냄새가 잘 나지 않아 돈사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다.

톱밥 발효돈사이다 보니 직원은 총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모두 자기일처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박사장은 농장을 경영해오면서 가장 어려운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다른 농장들처럼 돼지파동에 따른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어려운 점은 직원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한 관리의 연계가 되지 않는 점이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점이라고 한다. 특히 박사장은 본인을 위해서는 자가용도 가지고 있지



▲박동래 사장은 혼한 자가용도 없지만 농장 직원들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농장 기숙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동래 사장

않지만, 농장직원들을 위해서는 최신시설의 기숙사를 지어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무척 관심을 쏟아주고 있었다.

부인 이연자씨와의 사이에 3남매를 두고 있는 박사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노력한 만큼 대가는 주어진다라는 신념으로 양돈에 임하고 있었다.

특히 박사장은 현재까지 농장을 경영해오면서 작년에만 시설개축공사로 1억원을 투자하는등 계속 투자를 하여왔는데 실제로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IMF체제에 접어들므로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박사장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하는 계획이 서 있었다.

가축을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선 박사장은 앞으로는 구조상 모든 축산



▲ 톱밥토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돈군들,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물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돼지값이 오를때 되어서는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축산물이 들어올 것은 뻔한 이치라고 말하고, 모든 양축가가 합쳐서 살아 남으려면 현재의 배합사료의 가격이 40~50%가 오른 상태에서 키운 돼지가 출하될때는 100kg 돼지 1두당 가격이 22만원 이상은 되어야 농장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너무 수동적인 대처방안이므로 지금부터 모든 양돈농가가 돼지를 빨리 줄여야 한다고 한다. 현재 국내의 돼지 사육두수가 과잉상태이므로 이를 빨리 적정 수준으로 줄여서 수급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박사장은 과감하게 자돈들을 도태시켜야 하며, 출하시 중량을 낮춰서 출하를 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여 국내 양돈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등 국내의 양돈농가가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사장은 이러한 신념하에 과감하게 허약 자돈을 도태시키고 있으며, 낮은 중량의 돼지를 조기출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를 해나가고 있었다.

지금의 IMF시대에는 누구하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전국의 양돈농가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수준높은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신애원농장 박동래 사장처럼 현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이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농장만이 현재의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養豚**

